턱 교정수술과 치아 교정치료

병행치료 안하면 씹기·발음에 문제 생겨

교정→턱 수술→마무리 교정이 일반적 방법

치아·구강 정상적 기능… 수술효과 극대화

턱교정 수술은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각종 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턱교정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턱교정시에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다반사다. 턱교정 수술을 하더라도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와 교정치료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 지, 효과적인 수술법 등 턱교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조진형 전남대 치과병원 교수의 도움말로 풀어본다.

◇턱교정 수술을 하는데 왜 교정치료가 필요한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골격이나 치아 크기, 배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흔히 정상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고쳐주는 것이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그 정도가 심해 본인의 자존감이나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를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외모나 복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환자의 부정교합이 치아에 한정되어 있다면 치아의 이동을 통한 교정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정환자의 많은 경우, 그리고 턱교정 수술을 원하는 모든 환자에서 위턱(상악골)이나 아래턱(하악골) 등 턱 자체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치열의 교정을 원하는 환자에서 턱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 치아 교정만을 시행하게 되면 치아배열의 심미나 기능은 증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안모의 심미성이나 치료 후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턱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턱이 성장하는 동안 음식물 저작과 섭취, 그리고 발음을 위해 치아의 발육이 비정상적인 턱에 맞추어 재위치 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 현상은 수직적, 횡적, 전후방을 포함하여 3차원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턱교정 수술을 고려 시에는 상악골과 하악골내 치아를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시켜 놓지 않으면 턱교정 수술 후 잘못된 치아의 위치 때문에 이가 잘 맞물리지 않게 되고, 턱교정 수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턱교정 수술 후 안정성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는 타이어 펑크가 난 후 오랜 시간 주행을 하여 차축이 휘게 되었는데, 차축은 수리하지 않고 타이어만 교체한 것과 같은 결과로 겉으로 보기에는 차량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차후에 차량의 손상이나 사고의 위험성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같이 턱교정 수술 환자는 ▲위턱과 아래턱 치아들의 비정상적 배열의 정상화 ▲턱교정 수술의 효과 극대화-얼굴의 심미성 증진 ▲턱교정 수술 후 치아 및 구강의 정상적 기능 회복 ▲턱교정 수술 후 안정성 증진 등을 위해 반드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언제 교정 치료를 해야 하나요?

턱교정 수술 전에 잘못된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아 위턱과 아래턱의 정상적인 위치로 치아를 움직여 수술 후에는 바로 정상적으로 저작이나 발음이 가능하도록 교정치료를 먼저 한 후 턱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교합의 세밀한 조정을 위해 마무리 교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모의 빠른 개선을 위해 교정 치료 전 턱교정 수술을 시행하거나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교정 치료를 하고 턱교정 수술을 시행한 후 교정 치료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입되고 있다.

어느 것이든지 교정 치료와 턱교정 수술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치아 교정이나 교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구강외과의사와 턱교정 수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정의사와의 협진진료체계가 중요하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얼굴의 심미성만을 생각하고 교정 치료 없이 턱교정 수술만을 시행하게 되면 평생 저작과 발음 등을 책임져야하는 치아와 치조골의 손상 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술 후 안정성이 떨어져 얼굴의 변화나 턱과 치아에서 기인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교정치료는 어느 방법이든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경우에 따라 교정 치료 전, 즉 아무런 치아 이동도 없이 턱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환자에 따라서는 먼저 턱교정 수술을 한 후 교정치료를 시행하거나 간단한 교정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턱교정 수술을 시행하는 구강외과의사와 교정 치료를 맡는 교정의사 간 긴밀한 협진 아래 진단을 하고, 본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치료 및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치료기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수술은 금방 끝나는 데 교정치료기간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턱교정 수술은 턱을 절단하고 재 위치시킨 후 고정하는 과정이므로 단시간에 할 수 있지만 치아의 이동은 이동하고자 하는 쪽의 골 흡수와 반대 측의 골의 형성을 통한 지극히 생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어찌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턱이 성장하는 십수 년 동안 나타난 치아의 적응 이동을 1-2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교정의사들은 환자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리적으로 안정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야 한다.

보다 아름다운 용모를 위해 교정 치료를 택하든 턱교정 수술을 택하든 교정의사와 구강외과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협진 속에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모만을 생각하고 턱교정 수술만을 시행하게 할 경우 호흡, 발음, 저작 등의 중대한 기능이 흐트러져 치료 후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조진형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진형 전남대치병원 치과교정과 교수가 치아의 위치가 잘못된 초등학교의 어린이의 치아교정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伊 기술이전 '로봇 대장내시경' 실제 책임연구자는 박종오 교수

KIST, 김태송 박사 주도 발표 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괄연구책임자를 바꾸어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과학계에 따르면 KIST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의 김태송 박사는 지난 8일 "대장 내시경 로봇 기술을 이탈리아의 의료장비제조 전문기업 ERA엔도스코피에 100만 유로(약 15억원)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사업명이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기술개발사업'으로, 총괄연구책임자를 김태송 박사로, 연구기간을 2000년 5월부터 2003년 6월로 밝혔다.

2001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이 로봇은 내시경 수술 때 통증과 대장에 구멍이 뚫릴 위험을 크게 줄인 첨단 내시경이다.

하지만 이날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해당 연구의 총괄책임자였던 전남대 로봇연구소의 박종오〈사진〉 교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연구책임자는 나였고, 김 박사는 연구에 참여도 하지 않았고 기술이전계약의 행정적 뒷마무리만 맡았다"며 "관련 학술 논문에도 김 박사이 이름은 없다며 KIST는 허위사실을 알린 김 박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박 교수는 KIST 재직 시절 당시 지능형마이크로사업단장을 맡았으며 그의 주도로 대장 내시경 로봇이 개발됐다.

박 교수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8일 전화로 자신의 주장을 김 박사와 키스트 쪽에 전달하고, 전남대학교는 총장 명의로 항의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IST는 "KIST가 이탈리아에 이전한 기술의 특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 기술의 실시계약 체결 당시 사업단을 총괄한 김 박사를 대표 연구자로 홍보 문안을 작성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박종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름 하나 걸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KIST가 연구윤리에 무뎌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제가)기술이전 소유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훼손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원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로봇 대장 내시경 시스템' 개발 과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 연구비 10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기존의 대장 내시경은 의사가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의 긴 관을 항문을 통해 대장에 밀어 넣어 검진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이 대장의 심하게 구부러진 곳을 지날 때는 불쾌감과 고통이 수반되고, 장천공 등의 위험성도 크다.

KIST 연구팀은 자벌레의 이동원리에 착안해 장의 굴곡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부러진 부위를 따라가면서 대장 내를 이동하는 로봇 내시경을 개발했으며, 실험 결과 환자들이 기존에 느끼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친절 슬로건'… 2월은 '다음 순서 안내'

전남대병원이 '다음 순서 안내하기' 슬로건 아래 환자중심 친절병원으로 거듭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다음 순서 안내하기'를 2월의 친절 슬로건으로 결정하고, 이 슬로건을 병원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내걸고 전 직원 친절모드 조성에 본격 돌입했다.

'다음 순서 안내하기'는 환자나 보호자가 접수 또는 검사 과정 중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주저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먼저 다음 과정을 안내 또는 설명해주자는 취지의 슬로건이다.

올해 '환자중심 친절병원'을 표방한 전남대병원은 구호에 그치는 친절이 아닌 실천하는 친절로 환자 만족도와 병원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같은 '친절 슬로건'을 채택하게 됐다.

또한 '친절 슬로건'은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전남대병원이 친절병원으로 고객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직원들의 노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절 슬로건'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달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최근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의 영예를 안은 전남대병원은 지난 1월 친절병원을 위한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최근에는 간호부가 '한걸음 더 가까이, 감동주는 간호'라는 2012 환자중심간호 슬로건을 채택하면서 친절병원 조성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송은규 원장은 "친절이 환자중심병원의 기본요건 중 하나다"면서 "전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공인중개사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대료
별도지급
사업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1,130㎡(342평).식당.매점. 현재성업 중.매매가 9억원.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감정가5억9천만 최저가4억2천만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로변(상업지역) 대지330평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일반상업3층건물 대지60평 건평132평 감정가5억7천만 최저가4억

단독주택
· 남구 봉선동 2층단독주택 대지56평 건평70평 감정가1억8천만 최저가1억2천만

근린주택
· 동구 계림동 4층상가주택 대지53평 건평193평 감정가 4억 최저가 3억2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한방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해수욕장부근 관리지역101평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960평
-매매금액:45억원
-융자금액:20억원포함

상무지구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롯데시네마 11층
-분양면적 : 600평
-전용면적 : 350평
-대형음식점, 뷔페 적합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